

은빛 요양원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도와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전문가 서비스
가정 같은 또 하나의 생활공간
간호, 간병, 전문 재활치료
한국문화 정서와 여가 활동
한국어 직통
732.770.0609
www.은빛요양원.com

헤럴드 기어 변호사

HAROLD J. GERR
Attorneys at Law

자동차 혹은 트럭사고,
척추나 디스크에 관련 된 사고,
공사현장 사고, 뼈가 부러진 사고,
범죄로 희생양이 된 사고,
각종 상해, 사망사고

1-877-249-4600

47 Raritan Ave. Highland Park, NJ



16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준 풀턴 부동산

908-295-7053

준 '원출' 풀턴
Sales Associate
Re/Max Instyle Realty
june@instylerealty.com



1378 Route 206 Suite 202, Skillman, NJ 08558 junefulton@remax.net

연중
제 29주일

2021년
10월 17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목 10a-3p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복주기도의 어머니>
바르톨로메오 에스테반 무릴요, 1650년

<이번 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이사야서 53,10-11

화답송 시편33(324-5.18-19.
20과 22(◎ 22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2독서 히브리서 4,14-16

복음환호송 마르 10,45 참조

○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복음 마르코 10,35-45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간 전례 말씀

월요일 10/18/21
화요일 10/19/21
수요일 10/20/21
목요일 10/21/21
금요일 10/22/21
토요일 10/23/21
일요일 10/24/21

제1독서/제2독서

사도 바오로 티모테오 2서 4,10-17L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12-21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6,12-18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6,19-23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7,18-25ㄱ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1-11
예레미야서 31,7-9
히브리서 5,1-6

복음 말씀

루카 10,1-9
루카 12,35-38
루카 12,39-48
루카 12,49-53
루카 12,54-59
루카 13,1-9
마르코 10,46L-52

KWIK MORTGAGE
퀵모기지
주택융자, 상용건물, SBA융자
타은행에서 융자가 거부된 분 상담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spark@kwikmor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VESTA·OH
Kitchen & Bath Renovation
부엌, 욕실 전문그룹
오용운 토마스 | m 917-662-8353 | kitchenoh@hotmail.com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strust@gmail.com

메디케어 무료상담
올바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박미원
Independent Licensed Agent
문의 전화 908 655 5339

이문식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각종 안질환 치료
백내장 검사 및 녹내장 치료
검안 및 시력 교정
야동 사시 치료 및 시력 교정
콘택트렌즈 및 안경 맞춤
P. 732-393-1210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에디슨 H-mart 앞

에디슨 현대정비 Hyundai auto repair
종합정비
Auto Repair · Service
김도영 (Philip Kim)
C/P : 732-853-5696
Tel : 732-543-1110
1808 Woodbridge Ave.(Rt.514)
Edison, NJ 08817

BOYLAN
Funeral Home
Edison 732-572-0076

ND EAST BRUNSWICK
NEW IMAGE DENTAL LLC
444 Ryders Lane
East Brunswick, NJ 08816
Tel. 732-432-8388
J.Woo D.D.S.

강준한의원
진료 안내
한의원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한약(보약, 치료약)
침, 뜸, 부항
중국 전통식 지압
1734 Lincoln Highway Rt.27, Edison
에디슨 H-Mart 앞 확장 이전
(732)287-8881

HONORS REVIEW East Brunswick
SAT, ACT, APs, Enrichment Programs
우성현 스테파노 732-254-3349
3 Lexington Ave East Brunswick NJ 08816

성지순례, 단체관광, 크루즈 전문
가고파여행사
201-802-0820
353 Broad Ave. Suite 203 Leonia, NJ 07605

종합건축 AAMD construction
주택, 상가, 무료 상담 및 견적, 면허, 보험소지
골치 아픈 문제(건축허가, 누수), 비닐담장, 데크, 마루, 욕실, 주방,
지하실, 상가 리모델 등 건축 전반에 책임사공(기본 1년 보증)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드립니다.(성당 교우 10% DC)
732-964-9787
email: aamdconstruction@yahoo.com

HYUNDAI TOYOTA KIA NISSAN
Jeep CHRYSLER

SANSONE AUTO MALL
BEST CAR, BEST PRICE
90-100 RT.1 Avenel NJ 07001
Manny Kim
201-852-3232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최상우 - 최정원(레지나)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 김명규 - 안현정(소화데레사)
- 최규학(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가족
- 이화자(마틸다) - 가족
- 민병애(마리아 막달레나) - 민규란(엘리사벳)
- 김경아(미카엘라) - 가족
- 한경애(유리안나) - 가족

생미사 - 봉헌자

- 故김진철(요한) 장례미사에 도움주신 모든 교우분들 - 故김진철(요한) 유가족
- 김선정(세실리아) - 김순옥(올리아), 김삼식(베드로) 가족
- 김태현 - 김삼식(베드로) 가족
- 전선임(아네스) - 가족
- 김진희(아우렐리아) - 가족
- 박화성(헬레나) - 이대우(베드로)가족
- 이순영(라파엘라) - 이대우(베드로)가족
- 김폴 - 김종화(아가다)
- 허기욱(바오로), 허정자(데레사) - 이순재(마리아)
- 오경선(원선시오) - 이순재(마리아)
- 송대건(앤드류) - 가족
- 우리 본당 교우들 - 황덕삼(가브리엘), 황현주(데레사) 가족

교무금 납부 안내

박락준(10) 백원선(7-9) 손흥구(10-12)
 황덕삼(9-10) 이숙희(1-12) 김순옥(9-11)
합계: \$1,290

주일 헌금 납부 안내

주일미사 참여 140명 **합계: \$1,724**

라디오 미사 (주파수 FM 100.1MHz)

라디오 방송 미사에 참여하실 분은 성당 옆 큰 주차장의 지정된 지역에 주차 후 FM 100.1MHz로 맞추시고 미사를 청취하시면 됩니다. 미사 후 기다리시면 신부님께서 직접 차량을 방문하시어 성체분배를 해드립니다.

공지사항

코로나 관련 마스크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미사 참례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제대 왼편(성가대 맞은 편)에 앉으시면 됩니다.

목주기도 성월을 맞아 10월 한 달간 매 주일 미사 전 11시에 목주기도를 다같이 바칩니다.

- 10월 17일: 사랑하올 어머니
- 10월 24일: 일치의 모후
- 10월 31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성모회 피정 - 일시 및 장소: 10월 17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성모회 고추가루 예약 판매

- 주문마감: 10월 24일 (주일)
- 원산지: 테네시 농장 고추가루 (겔런백 사이즈)
- 고추가루 \$25 - 고운 고추가루 \$30
- 매운 고추가루 \$30 - 유기농 고추가루 \$60

전례회의 - 일시 및 장소: 10월 2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안내

- 일시 및 장소: 11월 1일(월) 오전 9시, 성당 (영어)

위령의 날 통합 미사 안내

- 일시 및 장소: 11월 2일(화) 저녁 7시 성당 (한/영)
-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 일시 및 장소: 매 주일 미사 후 오후 2시, 친교실
-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미사 후 친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유스그룹 초청 강연

- 일시 및 장소: 10월 24일 (주일) 오전 10시 5분 - 11시 10분, 친교실
- 주제: My Faith Story – how I continue my faith in college and any advice to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
- 강연자 : Cecilia Kim (Outreach & Communications Chair at Princeton University’s Catholic Campus Ministry)

<마르코 복음> 10,35-45

그때에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 앙 상 식

Q. 금육 때 네 발 달린 동물만 안 먹으면 된다면 사실인가요?

A. 요즘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먹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맛집 문화를 통해 미식을 즐기는 것이 한창 유행을 하더니, 이제는 먹방을 통해 과식을 기꺼이 즐겨보는 문화도 눈에 띄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먹을 것에 열광하는 중인데, 교회는 반대로 금식, 금육 등을 아직도 가르치며 먹을 것을 자제하라 하고 있죠. 시대에 뒤떨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금식과 금육을 강조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시대의 먹는 문화는 사실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개인’의 즐거움입니다. 음식을 즐기고 다이어트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기쁨을 위한 개인적 실천에 국한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음식을 개인의 소비물이라는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음식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나아가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금식, 금육은 그런 시각 안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등장하기 이전의 종교나 철학들은 단식을 개인의 건강과 복을 희망하며 실천하는 극기로 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로, 또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리라는 희망을 드러내는 표지로 단식을 대했습니다. 이로써, 단식은 하나의 기도의 형태로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가톨릭출판사 ‘4천년의 기도, 단식’ 3장 참조)

또한, 금육과 금식은 우리가 음식이라는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금식, 금육을 오랫동안 자선과 연결시켜 실천해 왔습니다. 금식과 금육을 통해 아낀 돈은 나 자신이 아니라 꼭 이웃을 위해 베풀 것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성을 확인해왔던 것입니다. 이로써,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한 범주로 묶일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매년 5월 14일은 기도와 단식과 자선 실천의 날로 지정되어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식에서 발견되는 공동체성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환경의 차원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찬미받으소서 212항 참조). 개인의 기쁨을 위해 소비되는 육류 등이 공동의 집인 지구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은 막대합니다. 동일한 영양소를 생산하기 위한 효율성의 측면에서 고기는 매우 뒤떨어집니다. 토마토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214리터의 물이 필요한 반면, 도축 이후 가공하는 과정 등을 포함하여 소고기 1kg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은 15,415리터라고 합니다. 이미 지구 담수의 70%는 농축산업에 사용되고 있지요(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iPET 창 81호 참조). 그리하여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아 지난 2020년에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특별 사목 교서 실천 지침’에서도 육류 중심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와. 서론이 정말 길었는데요. 금육과 금식을 개인적인 극기의 차원에서만 보면서, ‘두 발 달린 건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차원보다 더 넓게 바라보려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정 두 발 달린 동물을 금요일에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국 천주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중 금식, 금육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전해 드립니다.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기도로 지킬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만약 금육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 참고할 수 있겠고, 다른 방식으로 금육을 실천하신다고 하더라도 ‘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공동체적인 규정이 덧붙여 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